

三國時代 燈臺의 種類와 使用法

李相日 (忠南大學校 博物館)

I. 序論

照明道具 研究가 가지는 意味는 古代 社會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照明道具를 통해서는 구하기 어려운 燃料를 消費하는 經濟的 行爲, 일부 階層을 中心으로 실시된 文化的 行爲, 亡者를 위한 副葬 또는 燃燈供養을 보여주는 宗教的 行爲를 입증할 수 있다.

특히 古代 韓國에서 使用된 照明道具 중 三國時代 燈臺에 대해 주목하려 한다. 燈臺은 최근 많은 發掘成果를 통해 百濟와 新羅의 古都地域인 扶餘와 慶州에서 상당량의 資料가 축적되었으며, 住居遺跡뿐만 아니라 古墳과 寺址에서도 出土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三國時代 燈臺의 種類와 使用法을 간략히 알아보겠다.

II. 多燈式 燈臺

‘燈臺形 土器’로도 불리는 多燈式 燈臺은 주로 新羅와 伽耶의 古墳에서 주로 5세기 초부터 副葬된다. 또한, 최근 湖南地域에서도 光州 河南洞遺跡과 靈巖 泰澗里 زار峰古墳 등에서 출토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多燈式 燈臺이 가지는 가장 큰 形態的 특징은 여러 개의 臺을 가지는 것인데, 이는 中國 漢 또는 樂浪 多枝燈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圖 1).

多燈式 燈臺은 規格化되지 않은 威勢品 또는 副葬品으로 形態的 規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을 것이며, 出土 事例 또한 一般的, 規則的으로 副葬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時間的 變化와 特徵이 보인다. 먼저 多燈의 構成으로, 咸安 道項里 39호와 東萊 福泉洞 39호 出土品의 경우 큰 臺 또는 管이 中央에 配置되고 주위에 작은 臺 4개~6개가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데, 中國 漢과 樂浪 多枝燈에서 中央의 굽은 枝를 中心으로 작은 枝들이 配置되는 것을 보면, 이들의 影響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후 東萊 福泉洞 1호·53호 出土品의 경우 中央의 臺이 사라지고, 4개의 臺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 慶州 金鈴塚과 慶州 德泉里 1호 단계에서는 臺의 개수가 5~6개로 늘어나게 되며 토기 外面에 心葉型的 垂下飾장식이 가해지고 透窓의 개수와 크기가 커지며, 가장 많은 잔(臺)이 확인된 咸安 末伊山 25호 사례도 존재한다(圖 1-7).

다음으로 圓筒管의 구조에서 시간적 변화가 관찰된다. 圓筒管은 多燈式 燈臺의 특징적인 구조로, 臺 下部의 管을 통해 燃料를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照度 및 燈心과 燃料의 消耗時間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圓筒管은 이른 시기인 咸安 末伊山 45호, 咸安 道項里 39호 단계에서는 管이 설정되지 않으나, 이후 東萊 福泉洞, 慶州 金鈴塚과 慶州 德泉里 출토품에는 管이 설정된다. 이후 咸安 末伊山 25호 管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形態가 존재하며, 多燈式 燈臺이 사라지는 6세기 중엽 단계에서는 燃料을 貯藏하는 目的보다는 긴 燈心을 固定하기 위해서 가늘고 긴 형태로 변화하는 慶州 花谷里 사례가 확인된다(圖 2-7).

이러한 多燈式 燈臺의 성격은 副葬品이었을 것이다. 出土 樣相을 살펴보면 古墳 内部 副葬品空間 중 大甕 또는 大壺의 内部 또는 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照明의 象徵을 고

咸安 道項里 39호	東萊 福泉洞 39호	東萊 福泉洞 1호	東萊 福泉洞 53호	慶州 金鈴塚	慶州 德泉里 1호	咸安 末伊山 25호
						

圖 1. 多燈式 燈臺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부산대학교박물관 1996;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 부산박물관 1992;
『古蹟調査報告』第一冊;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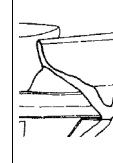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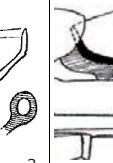
道項里 39호	福泉洞 39호	福泉洞 53호	慶州 金鈴塚	慶州 德泉里	末伊山 25호	慶州 花谷里
						

圖 2. 多燈式 燈臺의 圓筒管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李賢珠 외 1989; 부산박물관 1992; 『古蹟調査報告』第一冊;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전면 형태	수하식 흔적 및 대각	그을음 흡착 양상
		

圖 3. 多燈式 燈臺의 그을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품 필자 촬영)

려하면 副葬品 중 상대적으로 높고 중요한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古墳 外部 出土 사례도 확인된다. 慶州 月山里 68호 石槨墓 위쪽 周溝에서 墳墓祭祀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大壺 内部에서 多燈式 燈臺이 출토되었으며, 靈巖 泰澗里 자라峰古墳에서도 古墳周溝에서 器臺, 圓筒形土器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밖에 유물이 1~2개체씩 세트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며 확인되어 대규모인 祭儀行爲가 추정된 光州 河南洞遺跡 9號溝에서도 출토사례가 확인된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多燈式 燈臺은 副葬品으로 명확한 使用痕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使用痕이 확인되는 사례가 주목된다. 東亞大學校 石堂博物館 所藏品(圖 3)은 구체적인 출토 유적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5개의 臺을 가지며 垂下飾 장식 흔적과 엇갈린 透窓이 있어 慶州 金鈴塚과 慶州 德泉里 1호 단계로 추정된다. 이 유물의 경우 臺 口緣部에 실사용으로 인한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즉 中國 多枝燈과 같이 多燈式 燈臺이 앞으로 생활유적에서 출토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III. 移動形 燈臺

과거에는 가로등 등 人工照明은 존재하지 않아 夜間에 移動할 때는 照明道具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室外用 照明道具는 高麗時代 발전하여 朝鮮時代 때 廣範圍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三國時代에도 移動을 위한 專用의 燈臺을 제작한 것이 확인된다(圖 4).

일반적인 燈臺에 비교해서 大型으로, 移動하며 使用할 때에는 燃料을 補充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게 고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손잡이와 함께 燈臺 外部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칸도 존재하는데, 용도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移動하며 使用하는 경우, 燃料을 흘리거나 불뚝이 튀어 火災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름받이 역할을 하거나, 燈心이 燃料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잡이가 달린 형태는 中國 照明道具에서도 보이는 특징으로, 室外에서 사용되는 行燈의 경우 들고 걸을 수 있게 柄 또는 鑿와 같은 추가적인 구조가 설계된다(麻賽萍 2014: 65).

移動形 燈臺 대부분은 百濟 遺跡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王宮인 扶餘 官北里·雙北里, 益山 王宮里, 國家施設인 扶餘 扶蘇山城과 靑山城, 國家寺刹인 益山 彌勒寺址 등에서 출토되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위계가 높은 유물로 생각된다.

IV. 皿形 燈臺

大衆的으로 傳統 燈臺이라고 하면, 皿形 燈臺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百濟 熊津期부터 出現하여 泗泚期에 들어서면 다수 普及된다. 특히 三國時代의 경우 다른 유적에 비해 寺址에서 출토 수량이 확연히 많다. 대표적으로 扶餘 陵山里寺址의 경우 寺域 外廓地域에 위치한 제3建物址에서 88점의 燈臺이 동시에 出土되었으며, 回廊 인근에 불씨 貯藏孔이 있는 小型建物址도 확인되었다. 慶州 芬皇寺의 경우 출토된 517점의 토기 중 261점의 燈臺으로 확인되었으며 慶州 皇龍寺址에서도 講堂址 北西偏 地域에서 다량의 燈臺이 廢棄된 상태로 확인된 예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僧侶들은 최고 知識人으로 글을 쓰고 佛經을 읽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17: 60), 新羅에서 100구의 佛像, 100개의 高座, 100개의 燈, 香, 꽃을 준비하는 百高座法會가 실시된 기록(김복순 2010: 97-111)을 고려한다면 燃燈供養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皿形 燈臺은 다양한 使用法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中國 研究를 참고하고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분석한 결과 燈臺의 燃料로 주로 사슴, 소 등 動物性 燃料과 들깨, 참깨 등 植物性 燃料을 사용했을 것이며, 燈心의 경우 公州 武寧王陵 燈臺 内部

에서 織物이 꼬여진 형태를 띠는 燈心가 확인되었다(이상일 2020). 이러한 燃料과 燈心은 燈臺에 남겨진 그을음을 통해 각각 다른 使用法을 추정할 수 있다(圖 5).

먼저 皿形 燈臺은 内部에 구조물이 없는 種類가 다수이며, 그을음이 口緣에 집중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그을음 패턴은 植物性 燃料를 사용하기 위한 燈心을 口緣에 걸쳐 사용한 것에 기인하였다. 특히 百濟 燈臺 일부와 많은 新羅 燈臺에서는 口緣을 바깥으로 좀 더 넓게 만들어 燈心을 올려놓기 쉽게 고안한 경우가 보인다.

이 使用法에는 特徵적인 모습도 확인되는데, 일부 燈臺에서 土器片으로 燈心을 눌러 고정된 痕迹이 보인다. 土器片이 위치했던 주변으로 그을음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燈臺 2개를 동시에 活用하는 方法이다. 燈心 燃燒하며 발생하는 재와 기름찌꺼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燈臺을 하나 더 놓거나 燈心の 固定을 위해 内部에 燈臺을 겹쳐서 사용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燈臺이 서로 겹쳐서 출토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圖 5-①).

다음으로 皿形 燈臺 内部에 燈柱가 존재한 형태가 있다. 燈柱 中, 별도의 粘土덩어리를 圓筒形으로 加工하여 內面에 부착한 종류로, 燈柱를 부착한 후 주변을 원형으로 물 손질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부착했기 때문에 종종 떨어진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燈柱 上面 가운데 부분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燈心을 더 잘 고정하도록 한 종류가 있는 점을 보면, 植物性 燃料를 위한 燈心을 燈柱 위에 올려 사용했을 것이다(圖 5-②).

燈柱 内部에 管이 있어, 燈臺 바닥과 燈柱 内部가 연결된 형태도 小數 확인된다. 이러한 種類는 燈心을 燈柱 内部 管에 넣고 植物性 燃料를 사용했을 것으로, 扶餘 官北里, 慶州 皇龍寺址, 慶州 仁容寺址 등에서 적은 頻度로 확인된다(圖 5-③).

일부 燈柱는 底部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만들어 上面이 扁平하지 않고 둥근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上面이 橢圓形을 띠어 燈心을 고정하기엔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 動物性 燃料를 올려놓고 燈柱 하부로 기름찌꺼기가 내려가게 하는 용도일 것으로 추정된다(圖 5-④).

上部가 뾰족한 燈針의 경우 燈心을 安定的으로 올려놓기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형태를 고려하면, 動物性 燃料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動物性 燃料는 常溫에서 固體形態를 띠고 있어 燈針에 固定하여 사용했을 것이다. 動物性 燃料는 燃燒하며 脂에서 찌꺼기가 포함된 점성이 강한 膏로 변하는데, 이런 흔적이 燈針 部分에서 확인된다(圖 5-⑤).

마지막으로 燈臺 内部에 環이 존재한 사례가 있다. 慶州 皇南大塚 蓋杯燈에서도 보이는 構造로 新羅地域을 위주로 확인된다. 環은 中國 南朝代 盛行하였다고 알려졌는데 内部가 파인 圓기둥 구조물 위에 燈心을 올려 燃燒할 때 발생하는 재 등을 안쪽으로 隔離하여 燃料의 汚染을 防止하는 용도로 추정되고 있다(蔡大偉 2012: 31). 이러한 中國事例를 고려하면 植物性 燃料와 燈心の 조합을 생각할 수 있지만, 環 내부에 動物性 燃料를 넣어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圖 5-⑥).

다만, 수급 상황의 불안정성에 의해 두 가지 연료가 특정한 구분 없이 모두 사용되었다는 추정(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135; 강소영 2017: 31)을 고려하면 이러한 燈臺의 사용법이 절대적으로 지켜지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생활에서 적용되었을 것이다.

益山 王宮里 出土	扶餘 官北里 出土	江西省 吉安縣 出土	移動形 燈盞 模式圖
			

圖 4. 移動形 燈盞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6; 국립민속박물관 1996; 彭通凡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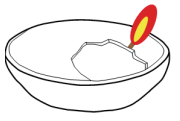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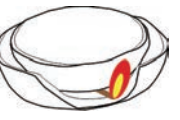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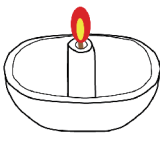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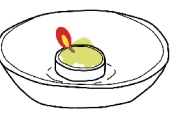
①口緣 (植物性 燃料)			
			
			
②燈柱 (植物性 燃料)			
			
③燈柱 (植物性 燃料)			
			
④燈柱 (動物性 燃料)			
			
⑤燈針 (動物性 燃料)			
			
⑥環 (植物性 · 動物性 燃料)			
			

圖 5. 皿形 燈盞의 使用法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2016)

V. 燈臺 代用品

三國時代 燈臺의 出土事例는 扶餘와 慶州 등 古都地域의 대표적인 유적에서 벗어나면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대체로 6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부터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6세기 이전과 등잔이 출토되지 않은 유적에서 조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은 燈臺 代用品의 존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에서 출토된 生活容器를 살펴보면 내부에 그을음과 기름 찌꺼기가 흡착된 경우가 관찰되는 종류가 확인된다. 사실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명을 실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로, 연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燈臺 代用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生活容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되며, 추가적인 구조물을 생활용기 내부에 접합하여 사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사용된 기종은 완, 고배, 개배가 대표적으로 확인되며, 皿形 燈臺이 다수 확인되는 6세기 말 백제지역의 경우 사비기에 들어서도 등잔 대용품이 여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생활 속에서 조명을 실시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皿形 燈臺의 경우 대부분 지름이 10cm 안팎의 소형을 띠고 있는데, 황룡사지에서 구경 15cm 이상인 완이 일상용기인 식기로서 뿐만 아니라 제작 당초의 기능을 벗어나 등잔으로서도 代用된 것은 금당, 강당 등 넓은 공간을 밝히기 위한 것(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244-245)이란 특수한 용도의 추정도 실시되었다.

VI. 結論

照明 專用의 기능을 하는 燈臺를 고안하고 생산한 것에는 분명히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사상이 존재했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燈臺이 寺刹에서 出土되는 점을 보면 佛敎의 傳來와 導入으로 인해 燃燈供養의 개념이 도입되며 專門的인 燈臺 생산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燈臺은 점차 왕실과 귀족계급의 실생활 속으로도 퍼져나갔을 것이다. 또한, 燈臺의 사용을 위해서는 구하기 어려운 燃料를 消費하는 經濟的 行위로 일부 階層들만 실시한 文化的 行위였을 것이다.

이처럼 燈臺에 대한 연구는 당시 社會의 複合的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요유물 뿐만 아니라 燈臺과 같이 과거 문화를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유물에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17, 「고고 유물에서 유래한 생체분자의 화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황룡사 출토 유물자료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황룡사지 1976~198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6, 『王宮里 發掘中間報告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陵寺 -부여 능산리사지 10차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발굴보고서Ⅲ』,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扶餘軍守里寺址Ⅰ-木塔址·金堂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왕흥사지 Ⅳ』,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왕흥사지 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왕흥사지 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17, 『百濟 王興寺』,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민속박물관, 1996, 『불의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咸安 道項里古墳群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新羅文化』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 『發掘遺蹟과 遺物 - 東亞大博物館』, 동아대학교박물관.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6, 『釜山大學校 開校 50周年記念 先史와 古代의 文化』, 부산대학교박물관.
- 부산박물관, 1992, 『東萊 福泉洞 53號墳』, 부산박물관.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咸安 末伊山古墳群 第25・26號墳』, 우리문화재연구원.
- 李賢珠·李尙律·全玉年, 1989, 「東萊福泉洞古墳群 第2次 調査概報」, 『嶺南考古學』 6, 嶺南考古學會.
- 이상일, 2018a, 「백제 등잔 사용법 연구」, 『백제연구』 6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상일, 2018b, 「백제 등잔(燈盞)과 전통 등기(燈器)의 비교 연구」, 『民俗學研究』 43, 국립민속박물관.
- 이상일, 2018c, 「백제 등잔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일, 2019, 「三國時代 燈器 研究」, 『한국상고사학보』 104, 한국상고사학회.
- 이상일, 2020, 「삼국시대 등잔의 연료와 심지」,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16,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慶州花谷里生産遺蹟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지구내-』, 성립문화재연구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慶州 德泉里古墳群』, 중앙문화재연구원.
- 麻賽萍, 2014, 「漢代燈具實用功能考」, 『東南文化』 2014-6, 南京博物院.
- 彭通凡, 1994, 『中國古陶瓷』, 藝術圖書公司.
- 蔡大偉, 2012, 「長江中下遊地區三至十世紀瓷油燈初步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